

우리는 하나

조계종 일본 조총련에 기금 및 생수 전달

조계종과 공익기부재단 아름다운동행(이사장 자승)이 지진으로 피해 입은 일본 센다이시 조총련계 민족학교를 지원했다.

조계종 총무원 사회부장 혜경 스님을 단장으로 한 조계종 대표단은 4월 28일 센다이 동북 조선 초중급학교(교장 윤종철)를 방문해 한국 불자들이 모은 기금과 생수 전달식을 개최했다.

조계종이 동북조선초중급학교에 지원한 기금은 400만엔(한화 6천여 만원)과 현직 교민과 일본인 피해자에게 공급될 '물은 감이로다' 생수 11톤(2만여 병)이다. 생수 2만여 병 가운데 1만병은 은평구 진관사(주지 계호)에서 후원했다.

동북조선초중급학교는 일본 센다이시 외곽에 위치한 조총련계 민족학교로, 3월 11일 규모 8.0 지진으로 건물이 붕괴될 위기에 처해 있다. 현재는 건물붕괴 위험 때문에 기숙사에서 수업을 계속하고 있다.

이날 대표단 방문에 앞서 조계종 관계자는 "일본지진 당시 국내 언론을 통해 동북조선초중급학교가 일본 내 정식 인가를 받지 않은 교육기관으로 일본 정부의 구조를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있으며, 조총련 계열이라 한국 정부나 영사관 등으로부터도 도움을 받지 못하는 딱한 상황에 처해있다는 소식을 접하고 인도적 차원에서 직접 지원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전달식에서 혜경 스님은 "처음 가는 길은 험하고 멀지만, 한번 간 길은 쉽게 갈 수 있다"며 "민족공통의 정서로 인도적 차원의 구호사업이 앞으로 더 많은 (남북)협력의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상호 협조하자"고 강조했다.

공익기부재단 '아름다운 동행(www.thenanum.org)'은 3월 14일부터 일본 지진 피해 지원을 위해 긴급구호 모금 캠페인을 펼쳐왔다. 4월 22일 현재 6억3200만원이 모금됐다.

조동섭 기자



조계종 의례위원회 발족

초대 위원장에 인묵 스님

조계종 의례·의식 표준화를 위한 의례위원회가 공식 출범했다.

조계종 의례위원회는 4월 27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에서 첫 회의를 열고, 조직 구성과 활동계획 등을 논의했다.

의례위원회는 조계종 어산작법 학교장 인묵 스님을 위원장으로, 위원에 총무부장 영담스님, 불학연구소장 원철 스님, 포교연구실장 범상 스님(이상 당연직)과

교육원장 무비 스님, 조계종 어장 동주 스님, 불광사 회주 지홍 스님, 송광사 율주 지현 스님, 중앙종회의원 일관 스님으로 구성됐다. 임기는 2년이다.

의례위원회는 2009년 11월 제정된 '의례법'에 의거해 △표준의례·의식의 심의 △종단발행 법요집 및 의례·의식 관련 자료집 감수 △총무원장 등의 의례·의식과 관련된 사항 등을 관장한다. 조동섭 기자



불법의 광휘, 널리 퍼지길

서울시청 앞 광장의 불촉등이 점등돼 2555년 부처님 오신날 불축 행사의 시작을 알렸다. 부처님오신날불축위원회(위원장 자승)는 4월 26일 오후 7시 서울시청 앞 광장에서 불축등 '석가탑' 점등식을 봉행했다. 이날 행사에는 조계종 총무원장 자승 스님, 태고종 총무원장 인공 스님, 천대종 총무원장 정산 스님, 진각종 통리원장 혜정정사 등 불교계 인사 등 2000여 사부대중이 참석했다. 석가탑은 국보 제21호인 불국사삼층 석탑을 원형으로 살아 제작한 것으로 전통한지 재질로 1:1.6비율로 황금비율로 제작됐다. 석가탑은 4월 26일부터 부처님 오신날인 5월 10일까지 서울시청 앞 광장을 밝힌다. 특히 이번 불축등으로 채택된 석가탑은 2010년 12월 3일 동축상단기단 부분에 발생한 균열 대한 불교 성보관리 자성을 상징하며 민족문화유산의 보존에 대한 국가적 관심을 촉구하는 의미를 지닌다. 점등식 이후 2000여 사부대중들은 탑돌이와 뒷돌이를 펼쳐 장관을 이뤘다. 글=노덕환 기자, 사진=박재환 기자

조선왕실의례, 일본서 영구 귀환한다

89년만에 한국... 환수위, 국민적 행사 준비

국보급 문화재인 조선왕실의례가 세월의 풍파를 견뎌내고 89년 만에 한국한다.

조선왕실의례환수위원회는 일본 국내청 황실도서관이 소장한 조선왕실의례 등 1205책을 원산국(한국)으로 반환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한일도서협정'을 4월 28일 일본 중의원에서 비준했다.

일본 국회 절차상 조선왕실의례 환수를 위해서는 참의원 의결이 필요하다. 그러나 일본 헌법 61조는 조약과 예산의 경우 중의원에 우선한다고 밝혀 이 날 중의원에서 비준된 협정에 따라 무난히 환수될 것으로 전망된다. 환수위는 또 이명박 대통령이 5월 22일 일본을 방문하는 만큼 비슷한 시기에 조선왕실의례 일부가 반환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로써 환수를 위한 민간단체의 끈질긴 노력은 드디어 5년 만에 결

실을 맺게 됐다. 조선왕실의례는 1922년 조선총독부가 일본 국내청 황실도서관에 기증하면서 불법 유출된 우리의 소중한 문화유산이다. 조선왕실의례가 불법 유출되자 월정사 주지스님은 조선왕실로부터 사고(史庫)를 지키라는 수호총섭의 소임을 받는다. 스님은 불법 유출을 막기 위해 노력했으나 국권을 상실한 국민은 무력할 수밖에 없었다.

85년의 세월이 흐른, 2006년 월정사, 봉선사, 조계종중앙신도회는 옛 소임을 다하고자 '조선왕실의례 환수위원회'를 구성하고 백방으로 뛰어다녔다.

이런 아픔의 세월을 견뎌내고 조선왕실의례가 국민의 품으로 돌아오는 만큼 위원회측은 대대적인 행사를 마련했다. 조선왕실의례 환수는 임대형식인 외규장각 도서와 달리 완전한 소유권 양도로 그 의미

가 더 크다.

5월 12일에는 환국기념 연회와 '조선의 보물 왕실의례' 환수 탐방이 마련된다. 도쿄돔 호텔에서 열리는 환국기념 연회는 동경 한일 양국 국회의원, 시도의원, 언론인, 사회단체, 종교인 등이 대거 참석해 조선왕실의례 등의 반환으로 새로운 한일관계 100년을 여는 초석을 다진다. 또한 5월 13-14일에는 왕실의례 환수 탐방 길에도 나선다. 탐방은 일본 왕실, 국립박물관, 영친왕관저, 일본의회, 동경대 등을 둘러보는 코스로 진행된다.

이상근 환수위 실행위원장(조계종 중앙신도회 사무총장)은 "조선왕실의례는 유네스코 세계기록문화유산으로 지정될 만큼 문화적·미술사적 가치가 공인된 문화재다. 반드시 국보로 지정돼야 한다"고 말했다. 박기범 기자

"누구와도 수익 반씩 나누겠다"

조계사 주지 토진 스님

한국불교 1번지 조계사는 부채가 100억원에 달하는 가난한 사찰이다. 조계종이 승려노후복지, 승가교육개선 등 중장기사업 등으로 수익사업에 관심을 갖는 가운데, 조계사가 어느 누구든 조계사에서 수익창출을 할 수 있다면 반씩 나누겠다고 밝혔다.

조계사 주지 토진 스님(사진)은 4월 27일 기자간담회를 열고 "행사와 운영에 노보살들의 돈을 합부로 쓸 수 없으며 보시로 인한 사찰 운영에는 한계가 있다. 부채를 갚기 위해 다양한 방법을 구상 중"이라며 이렇게 말했다. 조계사 연간 예산 100억원 중 보시로 인한 수입은 50여 억원. 보시에 돈을 넣는 이들도 줄어드는데다가 사찰 운영 사업의 낮은 수익률은 재투자가 어려운 운영 구조이다.

이에 토진 스님은 "개인이든 신행단체든 조계사에 수익 창출을 하면 50%는 당사자에게 회향하는 방법을 쓰고 있다"고 말했다.

예를 들어 100만원을 벌어들인 이들에게는 50만원을 준다. 또 각 신행단체에서는 행사에 드는 비용의 절반도 스스로 마련하도록 하는 등 자율성을 보장하고 있다는 것.

스님은 이와 함께 조계사의 패러다임을 변화해 포교·문화 중심 도량으로서 거듭나겠다는 비전도



밝혔다.

"계승 포교에도 변화가 필요하다. 퍼주는 포교가 아니라 자체적으로 창출하고 기여하는 문화로의 전환해야 한다."

토진 스님은 어르신들의 노후설계 등 실질적인 사업으로 참여하는 프로그램을 마련하고, 어린이 포교에도 어린이의 시각에 맞는 눈높이 포교도 준비중이다.

스님은 "아이들은 게임을 좋아하고 있는데 삼귀의·사후서원만 가르쳐서 되겠는가. 아이들이 좋아한다면 사찰에 게임을 설치해야 한다. 대신 게임 프로그램만 불교적인 것으로 바꾸면 된다"며 "조계사는 100주년 기념관 지하를 어린이를 위한 공간으로 리모델링해 진정한 어린이를 위한 공간으로 만들겠다"고 밝혔다.

이상연 기자

박구원 만평



5월은 부처님과 함께

대한불교대승종 제3기 승려 기본교육

1988년에 창종하여 24년간 대승불교의 근본취지를 추구해 온 본 종단에서는 입종 예정자를 위한 기본 교육을 아래와 같이 병행하오니 초보자, 전공 및 입종을 희망하시는 분들은 많은 동참 바랍니다.

- 아 래 -

- 기간 : 2011년 5월 21일(토) ~ 2011년 6월 19일(일) (토, 일 / 4주간)
- 과목 : 예불, 불공, 법기실수, 초발심자경문, 사찰경영 외 기본교육
- 장소 : 북한산 도봉사 도봉선원 (천년고찰)
- 접수 : 대한불교대승종 총무원 (02-952-1074 / 010-7273-1074)
대한불교대승종 교육원 (042-271-3754 / 011-9704-3247)
- 지원서 : 대승종 카페참조
- 마감 : 2011년 5월 3일까지 소인 유효

* 출가를 원하시는 불자 및 초심자 기초과정은 의식교육 수료 후 중헌종법에 따른 특별승려지원제도가 있습니다.

불기 2555(2011)년 5월

대한불교대승종 총무원
http://cafe.daum.net/daeseungjong

서울 성북구 돈암동 15-1 삼성 B상가 303호

불교방송(BBS) 사장 후보 추천을 위한 공모

(재)대한불교진흥원에서는

1. 불교 현대화 의지를 갖고 다양한 프로그램 제작을 위한 인프라 구축과 역량의 확충, 이를 위한 다각도적 재원 발굴 및 증대 가능성의 모색, 그리고 직원 교육 훈련 등의 비전을 가지고, 사회적 신뢰도 제고와 이미지 향상에 기여할 경력이 있는 분
2. 방송의 경쟁 현황 및 전망에 대한 식견을 갖추고 있으며, 사업 경영 능력과 불교방송에 대한 사명감을 가진 분을 불교방송 사장 후보로 추천하려고 합니다.

- 자격 : 1950년 4월 25일 이후 출생한 불자
- 본 원 홈페이지 공고일(2011년 4월 25일) 기준 임기 4년 가능자
- 제출서류 : 자필이력서 1부 (사진/ 상벌사항/ 서명·날인 포함)
경영계획서 1부 (A4 5매 ~ 10매)
- 제출일시 : 2011년 5월 31일(화) 정오까지
- 제출처 : (재)대한불교진흥원 사무국 (02-719-1855, 교한 210)
주소 : 121-714 서울시 마포구 마포동 140 다보빌딩 15층
- 면담 일시 : 추후 개별 통보
- 참고사항 : 1. 사장은 대한불교진흥원의 복수(2인) 추천 후 BBS이사회에서 1명 선임 (BBS정관 제5조 5항)
2. 사장 연봉에 대해서는 BBS 총무담당국(또는 기획관리국장)
Tel : 02-705-5220으로 문의바람